

*The Rainbow*: D.H. Lawrence의 Doctrine의 이원성

김 인 숙

영 어 영 문 학 과

(1984. 4. 30 접수)

## 〈要 約〉

本論文에서는 *The Rainbow*에 나타난 Lawrence의 doctrine(혹은 philosophy)의 dualism을 살펴보고, 이것이 Nietzsche의 *The Birth of Tragedy*에 나타난 “Apollo와 Dionysus의 調和의 概念”이라고 밝힌다. Apollo적 양상은 Lawrence의 全 作品과 批評文을 통하여 “Word”, “Idea”, “mental-consciousness”, “male-principle”, “love-mode”, “Lamb” 등으로 나타나고, Dionysus적 양상은 “Flesh”, “blood-intimacy”, “physical-consciousness”, “female-principle”, “power-mode”, “Lion”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두 양상의 순간적인 調和가 바로 “Crown”, “Rose”, “Rainbow” 등으로 상징된다. 이 論文의 目的은 Apollo와 Dionysus의 調和의 概念이 *The Rainbow*를 始發로 하여 Lawrence의 거의 全 作品을 貫通하는 中心主題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Lawrence에게 있어서 Nietzsche의 영향은 소수의 비평가들에 의해 論議되지 않은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들이 이 Apollo-Dionysus 문제를 하나의 象徴 혹은 下位主題로 다루고 있음에 비해, 본 논문은 바로 이 Apollo-Dionysus 調和의 문제가 그의 다양한 主題—death-rebirth, man-woman relationship, love mode-power mode, industrialism-primitivism, modern religion-primitive ritual—들을 포괄하는 것임을 主張하려는 것이다. 論文 紙面의 제약상, 그의 doctrine이 출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The Rainbow*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人生觀, 宗教觀, 愛情觀만을 다루고 있으나, Apollo-Dionysus의 調和의 主題는 그의 여러 作品과 doctrine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inbow*: The Dualism of D.H. Lawrence's Doctrine

In-sook, kim

Dept. of English Lang. &amp; Lit.

(Received April 30, 1984)

## 〈Abstract〉

In this thesis, I study the dualism of Lawrence's doctrine(philosophy) in *The Rainbow* and find that the duality has the the concept of “the balance between the Apollonian and the Dionysian”, which is mentioned in Nietzsche's *The Birth of Tragedy*. Through Lawrence's works and critical essays, the Apollonian aspects are expressed as “Word”, “Idea”, “mental-consciousness”, “male-principle”, “love-mode”, “Lamb”, etc., and the Dionysian aspects as “Flesh”, “blood intimacy”, “physical-consciousness”, “female-principal”, “power-mode”, “Lion”, etc.. And the momentary balance between the two is symbolized as “Crown”, “Rose”, “Rainbow”, etc..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that the Apollo-Dionysus balance is the central theme and conclusion of almost all works of Lawrence including *The Rainbow*.

The influence of Nietzsche on Lawrence's works has been commented by some critics. Then

they considered the Apollo-Dionysus duality as a subordinate or secondary motif or as a kind of symbol. But I try to find that his various themes—death-rebirth, man-woman relationship, love mode-power mode, industrialism-primitivism, modern religion-primitive ritual, and so on—are rather the variations of this Apollo-Dionysus dualism. Though, in this thesis, I study the dualistic doctrines of life, religion, and love chiefly in *The Rainbow*, the Apollo-Dionysus theme will be applied to almost all works and doctrines of Lawrence.

## I. Lawrence의 doctrine에 나타난 Apollo-Dionysus Duality

### 1. 人生觀

D. H. Lawrence는 vision을 제시하는 作家이다. 그는 그의 生의 vision으로 現代人의 意識과 感情의 領域을 넓혀 주었고, 이로써 小說의 可能性의 領域을 함께 확장시켰다. 그의 vision의 魂은 바로 그가 삶 그 자체를 격렬하리만큼 소중히 여겼에서 연유한다. 다음에서 보듯이 그에게는 산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奇蹟이었던 것이다.

For man, the vast marvel is to be alive. For man, as for flower, beast and bird, the supreme triumph is to be most vividly, most perfectly alive. Whatever the unborn and the dead may know, they cannot know the beauty, the marvel of being alive in the flesh. The dead may look after the afterwards. But the magnificent here and now of life in the flesh is ours, and ours alone, and ours only for a time.<sup>(1)</sup>

삶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진정한 삶의 의미”, 즉 生의 眞實에 대한 추구로 이어져 이것이 그의 全 作品의 중심 主題가 된다. 그러나 그의 個性이 보다 격렬히 生의 眞實을 추구할 때 그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러려 슬픈 假象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眞正한 삶과 假象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Lawrence와 Eliot

의 견해는 놀라울 정도로 一致하고 있다.<sup>(2)</sup> 즉 Eliot이 *The Waste Land*를 통해 生명의 原地(Urgrund)로부터 단절된 현대의 불모성을 파헤치고, 이곳의 거주자를 진정한 生명으로의 復活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death-in-life”의 허깨비로 진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Lawrence 또한 그의 작품을 통해 진정한 삶에 대한 인식 즉, 生명에 대한 主人 意識을 지니지 못한 이들의 죽음같은 삶의 모습과 復活없는 죽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Eliot은 *The Waste Land*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이 原地를 “mysterious sources”라고 표현하고 있다.

...all our significantly human acts have a common and mysterious source: arising from and returning into that secret realm where our being generates itself.<sup>(3)</sup>

계속해서 Eliot은, 生의 原地이며 原型(archetype)인 이 “mysterious source”를 현대와 결합시키므로써 현대의 불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때 Eliot의 “mysterious source”는 바로 Lawrence의 作品과 評論에서 슬하게 언급되는 “creative life-force”, “mystrious life-force”, “dark life-force”와 同類의 것으로 바로 “deep source of life” 즉, 生명의 vitality인 것이다.

이처럼 Eliot과 Lawrence가 삶(혹은 죽음, 애나하던 진정한 삶은 진정한 죽음과 같으므로)을 “假象”과 “眞實” 혹은 “light”와 “darkness”의 二分法으로 파악한다는 점은 “哲學의 人間은 현실계가 일종의 가상이라는 예감을 지니고 있다”<sup>(4)</sup>는 Nietzsche의 말처럼, 이 두 사람이 철학적 인간이라는 것을

(1) Graham Hough, “Lawrence's Quarrel with Christiaity: *The Man Who Died*” 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by Mosk Soilka (N.J.: Prentice-Hall, 1963), p.11.

(2) Lawrence에 대한 Eliot의 비난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Had Lawrence been sent to a public school and taken honours at a university he would not have been a jot the less ignorant; had he become a don at Cambridge his ignorance might have had frightful consequences for himself and for the world, “rotten and rotting others.”

T.S. Eliot reviewing *Son of Woman* (The Criterion, July 1931)

(3) A.D. Moody, “To fill all the dessert with inviolable voice”, in *The Waste Land in Different Voices*, ed. by A.D. Moody (London: Billing & Son Ltd., 1974), p.63.

(4) F.W. 니이체, 「悲劇의 誕生」 朴俊澤 譯(서울: 박영사, 1978), p.12.

보여준다.

그런데 사실 Lawrence에게서 보여지는 이 哲學的인 生命觀(혹은 人生觀)은 다분히 Nietzsche적이다. Hough는 Nietzsche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Lawrence의 doctrine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Lawrence의 vision과 *The Birth of Tragedy*에서의 Nietzsche의 ecstasy와의 類似性을 강조한다.

...Where Lawrence's powers are working most vigorously, it is the Dionysiac fervour of his destruction that is most striking; and it can be so intense that it becomes a positive value in itself. (The triumphant welcome Lawrence can give to the forces which are to extinguish all ordinary personal and social values is akin, or at least analogous to, the mystic's joy in the extinction of his personality. The ecstasy with which Nietzsche in *The Birth of Tragedy* welcomes the merging of all separate entities in the Dionysian flood is the only literary parallel to Lawrence's vision, ...<sup>(5)</sup>)

이리하여 Eliot의 "mysterious source"와 Lawrence의 "dark life-force"는 Nietzsche의 "Dionysian flood"와 연결지워지고, Eliot과 Lawrence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인생관)는 Nietzsche의 Apollo-Dionysus의 관계<sup>(6)</sup> 속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Dionysus에 대한 Nietzsche의 언급은 이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 줄 것이다.

모든 原始人이나 原始民族이…… 모든 자연을 환희로써 채우는 싱싱한 봄이 찾아왔을 때, 저 디오니소스적인 흥분이 눈뜨게 되는 것이며 흥분의 고조에 따라 주관적인 것은 완전한 자기망각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다. ……세상에는 經驗의 부족이나 둔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마치 大衆病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는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경멸적으로 혹은 연민의 감정으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가련한 무리들은 디오니소스祭의 열광자들의 불타는 생명이 그들 곁을 요란스럽게 지나갈 때 다름아닌 바로 그들의 건전성이 얼마나 死色顔 유행처럼 보이는가를 전혀 생각치도 못하고 있다. <sup>(7)</sup> (방점은 論者)

방점된 부분과 *The Waste Land*의 序頭를 비교해 보고 방점된 부분과 Lawrence의 '불타는 생명'의 vision을 비교해 보면, Lawrence가 제시하는 vision의 근거에 흐르는 Dionysus적 인식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전통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Lawrence의 생명의 vitality는 生の 本質에 內在하는 Dionysus적 힘이다. 이러한 Dionysus적 혼돈을 Freud의 心理學에서는 Id라고 한다. 물론 Apollo적 "Ego는 Id의 次要한 非理性的 요구에 대한 방어를 해야한다. 그러나 秩序가 混沌을 누르고 서머라도 혼돈 역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8)</sup>

이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명칭은 물론 그라이스인에게서 借用해 온 것이다. ……이 매우 상이한 두 衝動은 서로 평행해서 나

(5) Graham Hough,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N.Y.: Octagon Books, 1957), p.257.

(6) 니이체, Op. Cit., D.9, p.263.

자연 속에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두 예술 충동이 있다. 그 중 아폴로적인 것은 꿈(夢)과 같은 것이며, 존재의 개별적인 가상(假象) 위에서 있으면서, 조용하고 조화있는 미(美)의 황홀한 환상 속에 세상의 고통을 망각하게 하며, 혹은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주로 미술·서사시 등의 조형 예술(造形藝術)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도취(陶醉)와 같은 것이며, 존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지(意志)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개별적인 것이 부서지고 가상(假象)이 쪼갤 때 발생하는 피로움을 이 근원적인 생명에 합일(合一)시킴으로써 환희(歡喜)에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비조형 예술인 음악·무용·서정시 등의 모체이며, 또한 비극적 신화의 모체라고도 보았다.

Fortentwicklung der Kunst an die Duplizität des Apollinischen und des Dionysischen gebunden ist: 그 두 신에 대해서 구별해 본다.

아폴로	디오니소스
特性 冷靜·光明·明哲	陶醉, 狂氣
居處 天界	트라키아에서 온 메몬[鬼神]
聖獸 白鳥	大地 및 下界
植物 月桂樹	숫소(牛)·표범·사자·뱀
奉仕者 뮤우즈의女神	포도
禮拜 靜의 尊敬心	다이아네스[酒神侍女]
犧牲 供物を 바친다.	練奮의 狂亂의 衝動

特性 冷靜·光明·明哲	陶醉, 狂氣
居處 天界	트라키아에서 온 메몬[鬼神]
聖獸 白鳥	大地 및 下界
植物 月桂樹	숫소(牛)·표범·사자·뱀
奉仕者 뮤우즈의女神	포도
禮拜 靜의 尊敬心	다이아네스[酒神侍女]
犧牲 供物を 바친다.	練奮의 狂亂의 衝動

(7) Ibid., pp.16-17. 부분 인용

(8) 샘킨(Sam Keen), "디오니소스의 神學에 관한 聲明" 徐南同譯, 「轉換期の 信仰」 安納茂 책임편집, (서울: 대국출판사, 1979), p.308.

아간다. 대체로 공공연하게 서로 반복하고 서로 자극하여, 저 데립된 싸움이 단결되지 않도록 서로 더욱 강력한 새로운 탄생을 계속한다. ……그러나 다윈의 평행해서 나아간 두 충동이 그리이스적 意志의 形而上學的 奇蹟에 의해서 서로 부부가 되어 나타나는 때가 온다. 그리하여 ……더 오니소스적이면서 또 동시에 아폴로적인 예술품을 낳게 되는 것이다.<sup>(9)</sup>

Nietzsche에게 있어서 예술충동으로서의 Apollo와 Dionysus는 Lawrence에게 있어서는 바로 人間內의 상이한 두 충동, 나아가서는 人間과 人間사이의 두 충동, 세계 자체의 두 충동으로 나타난다.

“If you divide the human psyche into two halves, one half will be white, the other black.”<sup>(10)</sup>

여기서의 “white”와 “black”은 흔히 Lawrence의 작품 속에서 “light”와 “darkness”로도 나타나는 데, 바로 Apollo적 특징과 Dionysus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Apollo적 충동은 Lawrence의 비평적세계 이를 통해 “Word”, “Truth”, “Law”, “Idea”, “mental consciousness”, male-principle, “Love-mode”, “Lamb” 등으로 표현되고 Dionysus적 충동은 “Flesh”, “blood consciousness”, “blood intimacy”, “Holy Ghost”, “Godhead”, female-principle, “Power-mode”, “Lion”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Lawrence의 전 작품을 통해 꾸준히 이 Apollo와 Dionysus의 和合에 대한 vision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Apollo적 충동과 Dionysus적 충동의 和合은 결코 융합이나 병합이 아닌 칼날같은 견제속의 均衡이며, 이에 융통성과 상호인정이 덧붙여진 것이다.

And there is no rest, no cessation from the conflict. For we are two opposites which exist by virtue of our interopposition. Remove the opposition and there is a collapse, a sudden crumbling into universal darkness. But think, if the lion really destroyed, killed the unicorn: not merely drove him out of town, but annihilated him! Would not the lion at once expire, as if he had created a

vacuum around himself? ...They would both cease to be, if either of them really won the fight which is their sole reason for existing. ...But the lion and the unicorn were fighting for the crown.

...So in the royal arms the crown belongs to neither; it is alone, above and between the combatants. It is……, the symbol of the eternal balance of the two forces—a prize that is only worth having as long as it is never won.<sup>(11)</sup>

위의 例文에서 “crown”으로 표현된 Apollo-Dionysus적 균형은, Lawrence의 批評과 작품 속에서 eternity, integration, integral being, spontaneity, polarity, rainbow, rose 등으로 나타난다. 개인자신, 개인과의 관계, 사회, 종교 그리고 삶 자체가 이 두 요소의 균형을 이루지 못함에 이는 假象이며 필연적으로 생명력의 결핍으로 인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Lawrence가 꾸준히 추구해온 生의 vision은 바로 生의 두 요소—Apollo적 요소와 Dionysus적 요소—간의 조화인 것이다.

## 2. 宗教—愛情觀

Lawrence는 Edward Garnett에게 보낸 한 서한에서 “...primarily I am a passionately religious man, and my novel must be written from the depth of my religious experience.”<sup>(12)</sup>라고 그 자신이 종교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Lawrence의 종교개념은 종교의 archetype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그대로의 개념이다. 이 개념 속에서는 흔히 현대종교에서 볼 수 있는 自我와 超自我(절대자), 自然과 超自然, 俗世와 來世, 상대적 진실과 절대적 진실 간의 절대적 구분이 지양된다. 이 두 세계는 인간에게 內在해 있는 것으로, 하나의 세계로부터 보다 高揚된 다른 세계로의 진입은 인간이 지닌 “transcendence”의 능력에 의한다. 이 능력으로 人間은 자신 내부의 神性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자기완성을 이루게 되며, 우주와의 일체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Lawrence의 이상적 종교세계에는 神이 존재하지 않는다.

(9) 니치치, Op. Cit., pp.9—10.

(10) D.H. Lawrence,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H. Lawrence*, ed. by Edward D. MacDonald (London, Heinemann, 1936), p.370.

(11) Hough, Op. Cit., p.225—226에서 재인용, 부분인용.

(12) D.H. Lawrence,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ed. by Hary T. Moore (London, Heinemann, 1962), p.273.

...The very ancient world was entirely goddess and religious. While men still lived in close physical union, like flocks of birds on the wing, in close physical oneness, an ancient tribal union in which the individual was hardly separated out, then the whole cosmos was alike and in contact with the flesh of man, there was no room for the intrusion of the god idea.<sup>(13)</sup>

神이不在한 종교의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는 神性은, "Unless a man believes in himself and his gods genuinely: unless he fiercely obeys his own Holy Ghost,..."<sup>(14)</sup>에서 처럼 "Holy Ghost" 혹은 "Godhead"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바로 Dionysus적 生命力이다. 이런 의미에서 Lawrence의 宗教概念은 Dionysus적 창조력과 생명력에 바탕을 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神의 개념은 진정한 "individual"의 완성과 관계지워짐으로써 Lawrence에게 있어서 "individual"의 가치, individualism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의 완성이 내부의 Apollo적 의지와 Dionysus적 생명력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 합은 Lawrence의 종교개념에서는 바로 "transcendence"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he Rainbow*의 무지개는 "transcendence"의 순간의 光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awrence가 俗世와 來世의 區分을 止揚하고, 절대세계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神의 개념을 否定하는 점은 Christianity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히 이단적이다.

Lawrence's search for a philosophy of life was always conducted with religious intensity... Lawrence's religion always starts as a kind of Christian heresy. Unlike Yeats, ..., Lawrence is haunted by it; he has always to confute it or to get it out of the way first.<sup>(15)</sup>

그러나 Lawrence의 宗教觀과 Lawrence의 基督敎觀(물론 현대의 기독교를 말한다)은 분명 구별되

어려야 한다. 그리고 또 Lawrence가 이단적이나 아니냐의 問題는 그가 Christianity를 비난할 때 원래의 Christianity를 비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 즉 그는 오히려 원래의 Christianity에서 그 Apollo적 폭군적 이미지만 肥大해진 현대의 경제적인 Christianity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Apollo의 다른 표현인 'Word'와 Dionysus의 다른 표현인 'Flesh'에 대한 Lawrence 자신의 설명이 이 Christianity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 준다.

When we say 'I' we mean 'the Word that I am': when we love our neighbour we love the word our neighbour. That is, when we are aware of ourselves or of others, all we are aware of is the ego, the conscious, the expressed personality. We can only love this personal self. Our flesh cannot love the Flesh of another: for the Flesh is the portion of the Godhead in each of us, and is absolute, and cannot be subordinated to serve any other portion of itself. The relation of Flesh to Flesh is something beyond love. Its claims are above those of charity or fellow-feeling. Love or charity in the Christian sense is not an ultimate, it is only an affair of the word, and does not touch ultimate, the Flesh.<sup>(16)</sup>

물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현대의 Christianity이다. Christianity에서의 사랑과 자비가 Dionysus(Flesh)적 생명력과 관련된성을 잃고 Apollo(Word)적 의지의 문제가 됨으로써 오늘날의 Christianity의 神은 점차 허약하고 경제적인 神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Nietzsche도 宗教가 神話的 生命力을 잃게 되면 점차 약화되어 마침내 死滅하게 된다고 말한다.

.....종교가 사멸하는 방도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이러한 것일 것이다. 종교가 사멸하는 것은 종교가 지닌 여러 신화적인 전제들이, 正統의 독단론의 엄격한 지성적인 눈 아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총체로서 체제화되어, 사람들이 神話의 신빙성을 조심스럽게 변호하면서도, 신화의 자연적인 생명력과 번식력에 대해서는 마구 반대를 제창한다는 경우인 것이다.<sup>(17)</sup>

(13) D. H. Lawrence, *Apocalypse* (N. Y.: Viking Press, 1932), pp. 259-60.

(14)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p. 99.

(15) Hough, *Op. Cit.*, p. 56.

(16) *Ibid.*, p. 57.

(17) 니이체, *Op. Cit.*, p. 99.

Hough도 바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Christianity의 문제를 논하면서 이 Apollo-Dionysus적 양상을 Lawrence의 표현을 빌어 love mode-power mode로 표현하고 있다.

In either case, the love-mode is exhausted. Christianity is kept going by a barren effort of will, it has no longer any connection with the deep sources of life; and the consequences of this continuing will-driven automatism of love is to be seen everywhere in the modern world. (18)

결국 Lawrence는 원래의 기독교의 모습을, Flesh와 Word, Apollo와 Dionysus, Power mode와 Love mode가 調和를 이룬 상태라고 보았으며, 현재의 기독교는 이의 不調和 상태라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는 발생적으로 Dionysus적인 것을 排除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대한 핵심은 fertility ritual의 水葬儀式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즉, fertility god은 Thracia 등지에서는 바로 Dionysus를 의미하는데, 印度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fertility god에 대한 mystery가 있었다. 이 神의 葬禮儀式은 그의 活力이 자연의 그것처럼 소생하리라는 신념으로 행해졌다. 해마다 물에 던져졌다가 봄과 싹트는 옥수수과 더불어 돌아오는 神에 대한 장례의식은 곧 “죽음을 통한 삶”,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의 죽음과 정신의 부활의 原型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fertility ritual이 기독교화한 형태인 Grail Legend 또한 바로 Apollo와 Dionysus의 和合을 상징하고 있다. 이 傳説은 王이 性的으로 저주를 받게 됨에 따라 황폐해진 땅의 fertility를 회복시키기 위해 聖杯 탐구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자기 앞에 나타나는 여러 상징들 특히 聖杯와 聖槍(the Grail, the Lance)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땅의 fertility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의 중심주체인 저주와 구원은 바로 基督教의 중심주체의 하나이며, 이 때 the Grail과 the Lance의 의미는 female과 male 즉, Dionysus적 힘과 Apollo적 의지이며, 나아가서는 남녀사이의 건전한

sex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의미한다. 분명 Apollo와 Dionysus의 和合에 의한 구원, 다시말해서 남녀간의 창조적 sexuality에 의한 인간구원의 개념은 기독교는 물론 모든 종교의 근원이며 원이다. Lawrence의 종교개념이 남녀간의 sexuality의 분제와 융합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분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Lawrence의 많은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종교개념이 사랑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의 이같은 vision 때문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基督教가 Dionysus적인 性—sexuality—를 배제하고 영혼만을 중시하는 것은 Hough의 말처럼 그 원리의 본질이 타기보다는 오히려 우연적인 변형이라 할 수 있다.

...Spiritual love and sensual love are, after all, both forms of love: and the Christian depreciation of sexuality is an accident rather than the essence of its doctrine. (19)

그렇지만 Lawrence는 그래도 기독교가 원래대로는 荒蕪地를 극복할 수 있는 Dionysus적인 소지를 그나마 지니고 있다고 보며, 기독교에서 Apollo적 요소와 Dionysus적 요소의 조화가 이루어지리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려 한다.

And Christianity, at any rate Catholic Christianity, was at least a guardian of the mystery in the midst of the desert of mechanized civilization. As Lawrence sees it, Catholicism had even preserved some of the old earthly pagan consciousness, and through the cycle of the liturgical year had kept in touch with the rhythm of the seasons, the essential rhythm of man's life on earth. As the inheritor of sense of vital mystery which was the essence of religion, the Catholic church seemed at times to him a vehicle of hope. (20)

지금까지 Lawrence의 doctrine—인생관, 종교관, 애정관—을 살펴보면, 이 doctrine의 핵심이 바로 Apollo와 Dionysus의 duality라는 점을 밝혀 보았다. 다음으로 작품 *The Rainbow*를 다루면서, 이 Apollo-Dionysus duality가 어떻게 구현되

(18) Hough, "The Quarrel—" in *D.H. Lawrence: A Collection*— p.102.

(19) *Ibid.*, p.105.

기독교가 'sensual love'를 배제하는데 대한 Hough의 評은 바로 Apollo와 Dionysus의 문제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20) *Ibid.*, p.111.

고 있는가를 찾아 보기로 한다.

## II. *The Rainbow*에 나타난 Apollo-Dionysus Duality

### 1. 인생관

Lawrence에게 있어서 개인의 완성은 그의 내부의 Apollo적인 것과 Dionysus적인 것의 균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 *The Rainbow*에서는 개인의 완성,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의 완성과 삶의 완성에 대한 추구가 세 세대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Tom-Lydia의 세대는 아직도 생명의 根源과의 "blood intimacy"를 지니고 있다. Tom은 結婚 전, 내부의 갈등과, 여자와 결혼에 대한 번민으로 폭음을 하게 된다. 그 때 그는 잠깐 Dionysus적 황홀과 세계와의 一體感을 느끼게 된다.

He was happy and at one with all the world, he was united with all the flesh in a hot blood-relationship. So after three days of incessant brandy-drinking, he had burned out the youth from his blood, he had achieved this kindled state of oneness with all the world, which is the end of youth's most passionate desire. But he had achieved his satisfaction by obliterating his own individuality, that which it depended on his manhood to preserve and develop. (21)

Dionysus가 酒神 Bacchus로도 불리워질을 상기할 때 그의 폭음과 이에 따른 個體化 原理의 붕괴 즉, Dionysus적 몰입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Tom의 경우는 그 자신이 Apollo와 Dionysus의 균형을 이룬 個人性(individuality)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는 이후로도 불안감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

Will-Anna의 경우는 Tom-Lydia의 경우보다 더 미묘하다. 이들에게는 Apollo적 物質文明이 배경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며, 또한 "blood intimacy"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대방에 의한 자신의 진정한 individuality의 완성을 꿈꾸며 결합하지만, 그들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소유한 인간들이 아니므로 그 결합은

"mauvais-foi"일 따름이다. Lawrence는, 때로는 Will에게 Apollo적 이미지를, Anna에게 Dionysus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때로는 Will에게 Dionysus적 이미지를, Anna에게 Apollo적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개인 내의 두 힘의 갈등을 보여주고으로써 개인의 완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It seemed as though there were before him a solid wall of darkness that impeded him and suffocated him and made him mad. He wanted her to come to him, to complete him, to stand before him so that his eyes did not, should not meet the naked darkness. Nothing mattered to him but that she should come and complete him. For he was ridden by the awful sense of his own limitation. It was as if he ended uncompleted, as yet uncreated on the darkness, and he wanted her to come and liberate him into the whole. (p.179)

Will은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으로 고통받으며 Anna가 자신의 individuality를 완전하게 해 줄 것을 절망적으로 바란다. 여기서 그가 두려워하는 "the naked darkness"는 Dionysus적인 "dark life-force"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Dionysus적인 生命力이 결여된 상태의 죽음같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때의 Will의 두려움은 가상적 삶을 사는 불완전한 개인이 Dionysus적인 삶의 고뇌와 인식에 대해 느끼는 공포인 것이다. Nietzsche도 이러한 Dionysus적 인식이 가져다주는 공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는 고뇌와 인식이라는 두가지 은폐된 지반위에 아폴로적 단계를 덮고 있는 것이며, 이 지반의 단계를 걷고 이를 직시하고 인식하는 것은 실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예외적으로 '개체화의 원리(Apollo적 원리)'가 부서지면, 인간의 아니, 자연의 가장 깊은 근거로부터 즐거움에 넘친 황홀감이 솟아올라온다. 우리는 앞서 말한 공포(Dionysus적인 인식의)에 이 황홀감을 부가하여 생각한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본질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2)

Will은, Dionysus적 공포를 직시하고 그 속에

(21) D.H. Lawrence, *The Rainbow* (Penguin Books, 1972) p.28.

이후 본문중 괄호 속에 page를 표시하기로 한다.

(22) 니이체, Op. Cit., p.39, p.16.

철저히 빠져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고통을 통한 황홀을 획득할 수 없었으며, 그의 내부에 Apollo와 Dionysus의 조화를 이룰 수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다.

Anna 또한 Will과의 결합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But as time went on, she began to realize more and more that he did not alter, that he was something dark, alien to herself. She had thought him just the bright reflex of herself. As the weeks and months went by she realized that he was a dark opposite to her. (p.160)

그런데, Anna가 임신 중에 느끼는 희열과 승리감은 자기 내부에 존재해 있는 Dionysus적 "creative-life-force"를 실제로 체험하는 환희인 것이다. 그녀가 임신 중에 裸體로 주는 춤의 의미는, 음악 무용 서정시 등의 모체가 Dionysus적인 것임을 상기할 때 분명해진다. 그러나 그녀는 출산의 "고통을 통한 환희"라는 Dionysus적 체험을 그녀의 Apollo적 Ego와 합성시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개인의 完成을 이루어 보겠다는 노력도 스스로 포기하고 임신과 出産과 가정에 주저앉고 만다.

Here she was, safe and still in Cossethay. But she felt as if she were not in Cossethay at all. She was staring her eye to something beyond. And from her Pishah mount, which she had attained, what could she see? A faint, gleaming horizon, a long way off, and a rainbow like an archway, a shadow-door with faintly coloured coping above it. Must she be moving thither? Something she had not, something she did not grasp, could not arrive at. There was something beyond her, But why must she start on the journey? She stood so safely on the Pishah mountain. (p.195)

Anna는 Dionysus의 체험까지는 다가갔으나 그 돌출 속에 꿰어줄 용기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when he reaches the shore, when he traversed his known and come to the beach to meet the unknown, he must strip himself naked and plunge in; if he dare.<sup>(23)</sup>

이러하여 "the unknown" 즉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무지개로 상징되는 未知의 세계로 향하던 그녀의 꿈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녀의 바램으로 이어지고, 그녀는 Ursula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여행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There was another child coming, and Anna lapsed into vague content. If she were not the wayfarer to the unknown, if she were arrived now, settled in her builded house, a rich woman, still her doors opened under the arch of the rainbow, her another soul was coming, to stand upon her as upon the threshold, looking out, shading its eyes for the direction to take. (p.196)

다음으로 Ursula-Anton Skrebensky의 경우에 있어서 Anton은, Ursula의 보다 완전한 개인성의 획득을 위한 하나의 시련의 과정 역할을 할 뿐 Ursula의 진정한 男性關係는 *The Rainbow*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Women in Love*에서 Birkin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처음에 Ursula는 Anton을 그 자신을 소유한 남자, 그의 영혼이 혼자 설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He was in possession of himself, of that, and no more other people could not really give him anything nor take anything from him. His soul stood alone. (p.292)

그러나 이것은 Anton의 실체가 아니며 Ursula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완성의 환상일 따름이다. 罪人 Anton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어 그와 헤어져 있던 6년 동안 Ursula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大學에 진학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교육도 받았고 대학원 학전에 Brinsley Street의 국민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경험도 얻게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여선생 Winifred와의 同性愛關係를 통해 나이는 독신녀의 "the perverted life"에 융합되지 않는 진정한 삶의 의식도 갖게 되며 Winifred와 Uncle Tom에 의해 드러나는 物質主義·機械主義에 의한 人間性的 타락을 Wiggiston 탄광촌에서 목격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신을 갖게 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그녀는 현실의 인간들이 Apollo적 文明의 빛 속에 살면서, 불빛 밑에 모여든 나방처럼 주위에 Dionysus적인 창조적 생명의 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만큼 성숙

(23) Eugene Goodheart, *The Utopian Vision of D. H. Lawrence*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63), p.74.



하게 된다.

But she could see the glimmer of dark movement just out of range, she saw the eyes of the wild beast gleaming from the darkness, watching the vanity of the camp fire and the sleepers: she felt the strange, foolish vanity of the camp, which said 'Beyond our light and our order there is nothing', turning their faces always inward towards the sinking fire of illuminating consciousness, which comprised sun and stars, and the Creator, and the System of Righteousness, ignoring always the vast darkness that wheeled round about, with half-revealed shapes lurking on the edge. Yea, and no man dared even throw a firebrand into the darkness. For if he did he was jeered to death by the others, who cried 'Fool, anti-social knave, why would you disturb us with bogeys? There is no darkness. We move and live and have our being within the light, and unto us is given the eternal light of knowledge, we comprise and comprehend the innermost core and issue of knowledge. Fool and knave, how dare you belittle us with the darkness?' (pp. 437—438)

오랜 자기완성의 과정으로 성숙해진 Ursula는 다시 만난 Anton에게서 Apollo적 의지의 노예의 모습, Dionysus적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 채 죽은 영혼을 소유한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남자를 확인하게 된다. Ursula의 욕망속에서만 함께임을 느낄 수 있는 Anton과의 관계에서, 破婚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녀의 배반으로 Anton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이는 그 내부의 생명력(Dionysus 즉, Holy Ghost)을 거역한 이들의 당연한 귀결이다.

"Unless a man believes in himself and his gods genuinely: Unless he fiercely obeys his own Holy Ghost, his woman will destroy him. Woman is the nemesis of doubting man, she can't help it."<sup>(24)</sup>

Ursula와의 결별은, Ursula에게 매달려 있던 그의 죽어가는 生命力을 절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Apollo적 假象으로 존재했던 군대사회의 베일조차 걷어버렸던 것이다. 그 이후 그가 느끼는 공

포는 그의 죽어버린 생명의 어둠속에서 Dionysus적인 生の 고뇌와 인식이 가져다주는 공포이다.

He never thought of her. Only his terror of the hours of night grew on him, obsessed him like a mania. He slept fitfully, with constant waking of anguish. The fear wore away the core of him. (p.482)

그 후 Ursula와 Anton의 관계는 Ursula의 임신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시월 어느 오후 비오는 들뜬에서 야생 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현실이라기보다는 환상같은 이 일이 있는 후 그녀는 지금까지의 非現實의 껍질을 깨뜨리고 진정하고 새로운 reality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기서 말이 상징하는 바는 Lawrence가 말하는 바, 남성의 "sensual activity"이다.

...the horse dream refers to some arrest in the deepest sensual activity in the male. The horse is presented as an object of terror, which loves automatism, the great sensual male activity is the greatest menace.<sup>(25)</sup>

이 Dionysus적인 "the great sensual male activity"는 바로 Anton에게 결여된 생명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Dionysus적 물살이 지닌 淨化의 이미지이며 또한 Dionysus적 희생(스스로 제물이 되는)을 통한 구원의 이미지이다. "The Virgin and the Gipsy"에서의 洪水의 이미지도 이와 같은 것이며 John B. Vickery 또한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The Virgin and the Gipsy* elaborates the myth of the virgin whose salvation follows from her exposure to a sacrificial death. ...Her (Yvette) encounter with the water is both a ritual of purgation or purification and protection. ...Yet from its being a raging torrent to which Yvette is exposed, it is clear that this rite is more than baptismal introduction into a new existence. ...the image of the water as "a devouring flood". This image together with the attendant descriptions suggests that the threat to which Yvette is exposed is both that of the folklore monster (it is described as "a shaggy, twany

(24) D.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p.99.

(25) D.H. Lawrence, *Fantasia of the Unconsciousness & Psychoanalysis of the Unconscious* (Penguin Books: 1977), p.171.

wave-front of water advancing like a wall of lions") and the universal flood that represents a return to chaos.<sup>(26)</sup>

야생말의 환상과 비에 의한 淨化는 그 후의 Ursula 가 겪는 熱病과 더불어, 새로운 삶의 胎動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침내 Ursula 는 불모의 舊世界에서 新世界로 들어선다. 이러한 新生의 시야로 그녀는 저편 언덕에 뜨는 무지개를 본다. 이 무지개는 Ursula 가 Apollo 와 Dionysus 의 두 면을 모두 갖춘 새롭고 진정한 個人으로 탄생하리라는 기대이며, 진정한 individual인 男性(Birkin)과 和合하게 되리라는 예언적 희망이기도 하다. Lawrence 는 그의 무지개의 상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y idea of Eternity, I can best illustrate by the rainbow: it is the meeting half-way of two elements. The meeting of the sun and the water produce at exactly the right place and moment, the rainbow. So it is in everthing, and that is eternal... the Nirvana... just that moment of the meeting of two elements. No one person could reach it alone without the meeting.<sup>(27)</sup>

여기서 Eternity로서의 무지개를 이루는 태양과 비는, 바로 Apollo 와 Dionysus 의 이미지이며 이들의 和合은 열반과 같은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The Rainbow* 끝부분에서의 야생마와 무지개의 도입은, 비록 主題와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두리가 없으나, 다소 성급하고 너무 意圖的인 감이 없지 않다. 즉, Ursula 와 Anton 사이의 그 거나간 공백은, 둘의 해후가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것이 아닐 경우는 거의 무의미한 것이며, Ursula 의 임신은 비록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 Anna 의 경우와의 비교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다 할지라도 다소 건구하다. 결국 Lawrence 는 Ursula 와 Anton 의 관계설정(특히 뒷부분)을 무리하게 했으므로 무지개를 세운 곳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다쳐야겠다는, 그리고 다음 작품(*Women in Love*)을 써야겠다는 의

도"<sup>(28)</sup>가 야생마와 소나기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또 한편 이야기 전개가 주로 Ursula 의 애정문제를 다루어 왔으므로 이 무지개가 던지는 희망의 폭이 社會·宗教·文明 등에까지 미치지에는 미흡하다는 評을 던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Apollo적인 것과 Dionysus적인 것의 和合의 vision-은, *Women in Love* 의 남녀관과 사회관(文明批判)으로 이어지고, 그의 중기의 소설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장편보다 단편—"The Virgin and the Gipsy", "The Woman Who Rode Away", "St. Mawr", 그리고 중편 "The Man Who Died"—등에서 보다 명쾌한 종교관, 인생관, 애정관으로 성숙된다. 그는 후기 장편인 *Lady Chatterley's Lover* 에서도 이 Apollo 와 Dionysus 의 타협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작품 뿐 아닌 人生의 主題였던 것이다.

It's a novel of the phallic consciousness: or the phallic consciousness versus the mental-spiritual consciousness: and of course you know which side I take. The versus is not my fault: there should be no versus: the two thing must be reconciled in us.<sup>(29)</sup>

## 2. 종교-애정관

*The Rainbow* 의 첫부분의 의미는 여러 評者들에 의해 논의된 바이다. 이 부분은 Tom 에 이르기가 Marsh 農園에서 代를 이어온 Brangwen 家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小說의 聖書的 분위기로 인하여 이 부분은 舊約의 세계라고 이해되기도 하고 Eden에서의 人間의 모습이라고도 해석되어진다. 구약의 세계이든 Eden 의 등산이든 이것은 이미 Christianity 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더구나 Eden 의 개념이야말로 Apollo 적이며 절대적인 Christian God 의 의지의 産物이다. 人間이 Eden 의 개념을 갖게 됨으로써 人間의 마음속에 天國과 地上, 來世와 現世의 구분이 짝뜨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Eden 의 상실을 슬퍼하며 지상의 삶을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現世否定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

(26) John B. Vickery, "myth and Ritual in the Shorter Fiction of D.H. Lawrence" in *Myth and Literature* ed. by Vicker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6), pp.308-309 부분인용. 여기서 'flood', 'lions', 'chaos' 등은 모두 Dionysus적인 특징들이다.

(27) H.M. Daleski,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H. Lawrence* (London: Faber & Faber, 1965), p.125.

(28) F.R. Leavis, *D.H. Lawrence: Novelist* (London: Chatto & Windus, 1955), p.142. No real conclusion of the book, only a breaking-off, is possible—if only because Lawrence who started it has changed too much. ...What he was most conscious of, probably, was the desire to get this book somehow finished and done with, in order that he might get on with the one (*Women in Love*) he now wanted to write.

(29) Harry T. Moore, *The Life and Works of D.H. Lawrence* (London: Allen & Unwin, 1951), p.261에서 인용함.

은 맥락에서 “기독교야말로 이 지상에 최초로 驍蹻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다”, “인간이 겪은 최대의 재앙은 기독교이다”라는 Nietzsche의 유명한 말은 의심장하다. 다시 말해서 *The Rainbow*의 첫부분에서 기독교는 이미 그 내부의 Apollo적인 의지의 면이 그 자체의 Dionysus적인 면보다 더 우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The Brangwens had lived for generations on the Marsh Farm, in the meadows where the Erewash twisted sluggishly through older trees, seperating Derbyshire from Nottinghamshire. Two milles away, a churchtower stood on a hill, the houses of the little country town climbing assiduously up to it. Whenever one of the Brangwens in fields lifted his head from his work, he saw the Church-tower at Ilkeston in the empty sky. So that as he turned again to the horizontal land, he was aware of something standing above him and beyond him in the distance. (p.7)

‘horizontal land’로 얼굴을 돌려도 항상 머리위에 그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하는 우뚝 선 교회탑의 모습은 이미 Apollo적인 支配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Brangwen家の 고립된 농원은 아직은 그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으며, Marsh 농원의 세계에서는 교회는 여전히 그들의 생명력과 어느 정도 조화를 잃지 않은 채 그 자체의 Dionysus적 生命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세계에서는 여전히 하늘과 대지 사이의 생명의 交流가 그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Brangwen家の 남자들은 Dionysus적 生殖의 근원에 몰두하여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없을만큼, 오히려 Dionysus적인 면이 支配적인 인간들이다.

...So much warmth and generating and pain and death did they know in their blood, earth and sky and beast and green plants, so much exchange and interchange they had with these, that they lived full fed, their faces always turned to the heat of the blood, staring into the sun, dazed with looking towards the source of generation, unable to turn round. (p.9)

그러나 조만간 Apollo적인 세계가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Dionysus적 Marsh 농원의 삶에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조짐은 여자들에게서 싹튼다. 그녀들도 물론 천지의 생명의 물결을 그들의 血管 속에서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blood-intimacy”와는 다른 세계, 남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세계를 憧憬한다. 그 세계는 자아를 擴張하고 보다 고양된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세계로 여겨진다.

처음에 이 Apollo적 세계는, Cossethay의 목사에게 의해 그녀들 앞에 제시된다. 목사로 상징되는 기독교가 Apollo적 양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목사에게서, 신체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남편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된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교육과 지식의 힘이라고 단정해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

She knew her husband. But in the vicar's nature was that which passed beyond her knowledge. As Brangwen had power over the cattle so the vicar had power over her husband. What was it in the vicar, that raised him above the common man as is raised above the beast? She craved to know. She craved to achieve this higher being, if not in herself, then in her children. That which makes a man strong even if he be little and frail in body, just as any man is little and frail beside a bull, and yet stronger than the bull, what was it? It was not money nor power nor position... His soul was master of the other man's. And why-why? She decided it was a question of knowledge... It was education and experience, she decided. It was this, this education, this higher form of being, that the mother wished to give her children, so that they too could live the supreme life on earth. (pp.9-10)

목사로 代表되는 Apollo적인 삶에 대해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은 다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녀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그녀들은 Tom을 포함한 자식들을 Ilkeston의 학교에 보낸다. 그런데 Tom은 처음 經驗하는 이 지식의 세계 속에서 그 자신의 限界를 쓰라리게 인식하게 되었을 뿐, 보다 고양된 자아를 획득하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려는커녕 그곳에서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So that he felt that the ground was never sure under his feet. he was no where. (p.17)

그 시절에 그는 허약하지만 영리한 한 소년을 좋아했다. 그 소년은 바로 Apollo적 형상인데 그 소년에 대해 그는 侍從하는 입장을 취한다.

He had loved one warm, clever boy who was frail in body, a consumptive type. The two had had an almost classic friendship, David and Jonatan, wherein Brangwen was the Jonathan, the server. But he had never felt equal with his friend, because the other's mind outpaced his, and left him ashamed, far in the rear. So the two boys went at once apart on leaving school. But Brangwen always remembered his friend that had been, kept him as a sort of light, a fine experience to remember. (pp. 17-8)

Tom이 이 소년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은 바로 Apollo적 人間에 대한 그의 劣等意識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소년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좋은 경험, 일종의 光明”으로 여긴다. 그의 삶에 광명과 완성을 가져다 줄 Apollo적인 人間에 대한 갈구는 그 후 그가 Lydia를 아내로 택할 때도 여전히 작용하며, 그의 일생동안 계속된다.

Tom은 학교생활을 다치고 즐거이 농원생활로 돌아온다. 이 곳에서야 그는 다시 그 자신일 수 있었다.(the farm, where he was in his own again. p.18) 18歲에 농원일을 떠날고 안정을 갖게 되자 그는 여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娼女와의 육체적 접촉(carnal contact)은 그에게 환멸만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가 여자에게서 찾으려 한 것은 宗教적인 성질을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The disillusion of his first carnal contact with woman, strengthened by his innate desire to find in a woman the embodiment of all his inarticulate, powerful religious impulses, put a bit in his mouth. He had something to lose which he was afraid of losing, which he was not sure of possessing. This first affair did not matter much: but the business of love was, at the bottom of his soul, the most serious and terrifying of all to him. (p.20)

Tom에게 있어서 사랑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그 具現하는 바에 있어서 사랑과 종교는 같은 것이

었다. 이것은 바로 Lawrence가 지닌 사랑과 종교의 개념이기도 하다.

The right way of life is for the man to find his fulfillment, his approach to the Godhead, in woman; and nourished and strengthened by this to go out and produce his work, the Word-which is God the Flesh realizing himself in a moment of forgetfulness. ...For in the flesh of woman does God exact himself. Man is the go-between from Woman to production, to Art and work. Woman is the principle of continuance, and the door by which Man re-enters into the Flesh, the Godhead, and find new strength.<sup>(30)</sup>

여자에게 內在한 God the Flesh 즉 Dionysus적인 創造的 힘을 발견함으로써—상대방을 통해 자기 내부의 Dionysus적 힘을 발견함으로써—남자는 ‘Word’의 세계, 즉 “Art”의 “Work”를 창조해내는 Apollo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두세계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자기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宗教—愛情觀은 Lawrence의 작품을 일관하며 “The Man Who Died”에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다. 사실, 종교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지상에 살을 존재하게 하는 힘인 사랑이 宗教와 관련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The Rainbow*에서는 세대에 걸친 사랑의 전개가 종교적 분위기와 의미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Lawrence의 作品을 단순히 “Male-Female opposition”으로만 보는 것은 작품의 깊이를 감하는 일이다. Hough의 말처럼, Lawrence에게 있어서 sexual duality는 포괄적인 생의 duality의 한 켠에 불과하다.

...The Male-Female opposition is an instance of this duality, but only an instance; and Lawrence is not constructing the world on the model of sexual duality.<sup>(31)</sup>

오히려 종교적 흥동, 창조에 대한 衝動이 어느 다른 衝動보다 우선하며, 남녀의 대정도 그 흥동과의 관련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남녀관계의 創造的 사랑은 肉欲만의 흥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Lawrence에게 있어서 sensuality, sensual love, carnal love,는 文脈에

(30) Hough, Op. Cit., p.57.

(31) Ibid., p.225.

따라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긍정적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God the Flesh 즉, Dionysus적 生命의 源泉과 동일한 것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Apollo적인 理性을 영원히 거부하는 과격한 것이다. Lawrence의 애정관이 종교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그는 부정적 의미의 sensuality를 排除한다. 그러한 肉欲은 인간을 육욕의 노예로 만들고 Apollo-Dionysus의 調和조차 거부하기 때문이다. "The Man Who Died"에서, 바닷가에서 두 노예 사이에 벌어지는 情事는 그들이 신분적 노예일 뿐 아니라 육욕의 노예임을 보여준다. the man who died와 priestess 사이의 sensual love는 이와는 다른 肯定的 의미의 것이다. Tom이 Lydia에게서 추구하는 바도 이와 같은 긍정적 의미의 sensual love이며, 이로써 그는 그의 종교적 충동의 구현과 나아가서는 자신의 完成과 창조적 세계로의 발돋움을 期待하는 것이다.

And then it came upon him that he would marry her and she would be his life. (p.40)

Unless she would come to him, he must remain as a nothingness. He was nothing. But with her, he would be real. (p.41)

...She would bring him completeness and perfection. (p.41)

처음 Tom과 Lydia의 포용은 新生으로의 創造를 약속해 주는 듯한 超越적인 自我沒入을 가져다 준다.

From which he came to gradually, always holding her warm and close upon him, and she as utterly silent as he, involved in the same oblivion, the fecund darkness.

He returned gradually, but newly created, as after a gestation, a new birth, in the womb of darkness. Aerial and light everything was, new as a morning, fresh and newly-begun. Like a dawn the newness and the bliss filled in. And she sat utterly still with him, as if in the same. (p.46)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러한 結合이 없었던 것처럼 이내 낮선 이로 돌아간다.

They were such strangers, they must for ever be such strangers, that his passion was a clanging torment to him. Such intimacy of embrace, and such utter foreignness of contact! It was unbearable. He could not bear to be near her, and know the utter

foreignness between them, know how entirely they were strangers to each other. (p.49)

결혼 후에도 이러한 화혼과 환멸, 기쁨과 분노의 반복이 계속된다.

Tom-Lydia 관계의 어려움은 Tom의 未完의 個性에 주로 기인한다. 그는 Dionysus적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으나 Apollo적인 면은, 스스로가 限界를 느끼고 있다시피, 부족한 인간이다. Lydia와의 결혼은 그의 이러한 限界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나 그는 Lydia에게서 기대하던 Apollo적 요소를 끝내 알지도 수용하지도 못하며 자신 속의 Dionysus적인 면과 調和를 이룰 수도 없다. 이리하여 그는 결혼후에도 여전히 Dionysus적 인간, 아니 오히려 그 자신의 생명력조차 自制해야 하는 인간으로 남게된다. 그리고 Lydia와의 관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그는 그녀 아닌 다른 어떤 것 다른 人生의 中心을 찾아야 했다."(p.83) 그래서 그는 의붓딸 Anna에게 情을 쏟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자 차차 그의 힘들고 괴로운 生의 흐름(current)은 다른 經路를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生의 흐름이 泡沫을 일으키며 범람하여 불행울 초래할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p.83)

세월의 흐름에 따라 Tom은 일종의 자기와의 妥協과 抑制를 통해 Lydia와의 안정을 지키게 된다. 끝내 Lydia를 통해 자신 속의 神性を 발견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外部에서 概念으로 존재하는 알 수 없는 神의 의지 안에서 만족하고 만다.

...He(God) had passed through the married pair without fully making Himself known to them.

Now He declared to Brangwen and to Lydia Brangwen, as they stood together. When at last they had joined hands, the house was finished, and the Lord took up his abode. And they were glad. (p.96)

이처럼 神의 의지로 완성된 이 'house'는 Tom과 Lydia의 집이 아니라 神殿이며 人間을 통한 神意의 구현이다. 비록 Tom과 Lydia가 그 신전에서 기뻐하나 Lawrence는 神의 의지 안에서의 기쁨을 원하지 않는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 자신 속의 God the Flesh를 발견하고 이로써 Apollo적인 것과의 調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집을 인간이 소유하게 되는 길인 것이다. 이 세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神의 이와같은 Apollo적 이미지는 원래

의 Christianity로부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후 미오는 밤에, 洪水로 인해 술취한 Tom 이 익사하는 것은, 겨우 탈출할 위기를 억제하고 있던 Tom 의 Dionysus 적인 생의 물결이 마침내 밀려나고 만 것이다. 이 부분을 압도하는 "horse", "darkness", "flood", "current", "drunk" "rain" 등은 Dionysus 적 이미지이다. 결국 Apollo 과 마찬가지로 Dionysus 도 실 자리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다음 세대인 Anna 는 Tom 의 Lydia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神殿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Marsh 농원의 안전은 외부의 인간생활과 절연됨으로써 얻어진 것이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變化를 거부한 안전이다.

이러한 농원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Anna 는 外部와의 親交(intimacy)를 경멸하고 일정한 거리를 요구하게 된다. 친한(mean)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그녀에게 환멸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자기세계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 또한 간절하였다. 그래서 궁리 끝에 敎會에도 부지런히 다녀본다. 그러나 성경에 존재하는 모순과 려위 때문에 그녀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It was not right, somehow. What these words meant when translated was not the same as the pale rosary meant. There was a discrepancy, a falsehood. ...none of it was quite real. It was not satisfactory, somehow. (p.104)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宗教的 思考에서 벗어나려 한다.

She avoided her rosary, because, moving her with curious passion as it did, it meant only these not very significant things. She put it away. It was her instinct to put all these things away. It was her instinct to avoid thinking, to avoid it, to save herself. (pp.104-5)

Anna 의 눈에 미친 基督敎는 이미 모순과 려위를 드러내고 있다. 이 현상들은 기독교가 Dionysus 적 기원에서 유래되어 감으로써, 그 사랑의 敎理가 "will-driven automatism"化<sup>(32)</sup> 되어 가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Anna 는 Dionysus 적인 본능으로 교회에 대한 사고를 거부하려 한다. 敎理에 대한 사고가 자신의 영혼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生命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종교가 된다. "Flesh"와의 調和를 상실한 "Word"로서의 기독교는 그녀에게 무의미한 것일 뿐 아니라 그를 당하는 듯한 고통까지 주는 것이다.

...She became an assiduous church-goer. But the language meant nothing to her: it seemed false. She hated to hear things expressed, put into words. Whilst the religious feelings were inside her they were passionately moving. In the mouth of the clergyman, they were false, indecent. She tried to read. But again the tedium and the sense of the falsity of the spoken word put her off. She went to stay with girl friends. At first she thought it splendid. But then the inner boredom came on, it seemed to her all nothingness. And she felt always belittled, as if never, never could she stretch her length and stride her stride. (p.106)

宗教도 바깥세계에 대한 出口가 되지 못한 채, 그녀는 여전히 하나의 理想을 품고 있다. 그것은 자기의 經驗의 限界를 넓히고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꿈이다. 이러한 때 사촌 Will 이 그녀의 세계로 들어온다. 그가 지닌 바깥세계의 분위기는 Anna 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줄 것만 같다.

Without knowing it, Anna was wanting him to come. In him she had escaped. In him the bounds of her experience were transgressed: he was the hole in the wall, beyond which the sunshine blazed on an outside world. (p.114)

Will 은 Anna 가 속해 있는 Dionysus 적 농원 속에, 그의 직업이자 취미인 미술·조각 등의 조형예술로 상징되는 Apollo 적 이미지를 지니고 다가온다. 또한 Will 이 Anna 에게 선물한 비터 그림책에는 세가 조각되어 있다. 세는 알차 Apollo 의 Dionysus 의 두면에서 보자시라 Apollo 의 상징물이다. 이는 Dionysus 적인 Marsh 농원의 관에 Apollo 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세의 의미는 未知의 세계로 飛翔하려는 Anna 의 念願이요, Will 이 그것을 이루기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필연적인 것 같아 보인다. 결혼함으로써 Will 또한 그가 조각하고 있는 이브의 創造(the Creation of

(32) Hough, "Lawrence's Quarrel with—" in D.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al—, p.102.

Eve)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Lawrence의 언급처럼 여자 속에서 神性을 발견함으로써 藝術과 作業(Art and Work)이라는 창조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 완전한 調和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Will은 그의 未完成作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그에 대한 Anna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그도 Anna에 의한 自己完成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각에 대한 경멸은 다만 그의 불완전한 자아를 은폐한 Apollo적 假象일 따름이었던 것이다. 물론 新婚時節 들만의 세계 속에서 시간이나 변화를 초월한 완전함에 다다르기도 한다.

Inside the room.... Here was a poised, unflawed stillness that was beyond time, because it remained the same, inexhaustible, unchanging, unexhausted.

As they lay close together, complete and beyond the touch of time or change, it was as if they were at the very centre of all the slow wheeling of space and the rapid agitation of life, deep, deep inside them all, at the centre where there is utter radiance, and eternal being, and the silence absorbed in praise: the steady core of all movements, the unawakened sleep of all wakefulness. (p. 145)

Will이 Anna와의 육체적 관계에서 얻는 황홀감은 그가 大寺院에 들어섰을 때 갖는 느낌과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사원은 바로 'womb'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Here in the church, 'before' and 'after' were folded together, all was contained in oneness. Brangwen came to his consummation. Out of the doors of the womb he had come, putting aside the wings of the womb, and preceeding into the light. (p. 202)

이처럼 종교적 體驗은 Tom 일간 이따라 Will에게서도 사랑의 체험과 동일한 것이다. Will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어둡고 신비로운 情緒體驗인 것이다.

"In church, he wanted a dark, nameless emotion, the emotion of all the great mysteries of passion." (p. 158)

이 'dark, nameless emotion'은 Christianity가 원래 지니고 있던 Dionysus적인 힘이 인간에게 불

러일으키는 情緒이다. 그러나 이 세대에 이르러 이미 Dionysus적인 힘을 상실해 가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Anna와 Will이 大寺院에 갔을 때, 그가 대사원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 갖는 황홀한 느낌은 Anna에 의해 쉽게 깨뜨려져 버렸던 것이다. Anna는 이미 기독교의 Apollo적인 모습과 허위를 느끼고 있었고 그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宗教的 思考를 거부하는 상태이니 그가 이곳에서 느끼는 황홀감은 그녀에게 환멸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Anna에 의해 대사원의 가상이 깨뜨려지게 되자 大寺院은 Will에게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한낱 死物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것은 Will이 지닌 Apollo적 假象이 이루어 놓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She had got free from the cathedral, she had even destroyed the passion he had. She was glad. He was bitterly angry. Strive as he would, he could not keep the cathedral wondrous to him. He was disillusioned. That which had been his absolute, containing all heaven and earth, was become to him as to her, a shapely heap of dead matter-but dead, dead.

His mouth was full of ash, his soul was furious. He hated her for having destroyed another of his vital illusions. Soon he would be stark, stark, without one place wherein to stand, without one belief in which to rest.

...He wanted his cathedral; he wanted to satisfy his blind passion. And he could not any more. Something intervened. (pp. 205--6)

그러나 그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의 상징으로 교회를 사랑했으며 그 건물을 사랑했다. "그는 背信 당했음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며,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같았다. 敎會는 려위였다. 그러나 그는 한층더 강렬히 교회에 불사했다." (p. 209) 그런 한편으로 이제 "그는 다소 칭피하기도 했다. 마치 만족을 구하여 파저르 빠져드는 失敗한 인간처럼." (p. 207)

이와같이 그는 大寺院에 대한 환멸로 절대자를 상실한 꼴이 되고 한동안 그의 영혼의 중심을 잃게 된다. 대사원과 마찬가지로 그의 Apollo적 허위의 상징인 <이브의 탄생> 木彫도 스스로 깨뜨려 버린다. 생명의 중심을 상실한 Will은 그 후 맹목적으로 Anna의 生命力에 매달리게 된다.

한편 Marsh 농원의 고립된 세계 속에서 외부와의 교섭을 거부한 채 자기자신만을 고집하던 Anna의 自我는, 본능적으로 Will의 腐蝕的인 사랑에 대해 자기를 지키려고 투쟁한다. Will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생명이 온통 Anna에게 의존해 있다는 사실은 그로서도 착륙이었다. 그는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여서 Anna에게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임신으로 Anna가 그와의 투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Will 또한 점차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됨에 따라 그는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Anna로부터 점차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Anna도 자기자신의 세계를 상처없이 지킬 수 있게 된다.

...He could be alone now. He had just learned what it was to be able to be alone. It was right and peaceful. She had given him a new, deeper freedom. The World might be a welter of uncertainty, but he was himself now. He had come into his own existence. He was himself now. He was born for a second time, born at last unto himself, out of the vast body of humanity. Now at last he had a separate identity, he existed alone, even if he were not quite alone. Before he had only existed in so far as he had relations with another being. Now he had an absolute self—as well as a relative self.

But it was very dumb, weak, helpless self, a crawling nursling. He went about very quiet, and in a way, submissive. He had an unalterable self at last, free, separate, independent.

She was relieved. she was free of him. (p. 190)

아직은 약하고 무력한 자아이며, 幼穉처럼 지어 다니는 자아이지만 그는 차차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不動의 自我로 성장해 가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 교회라는 것은, 단지 Apollo적 환상이요 거짓이며, 너무도 좁은 까짜 문이어서 그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니었지만(...the alter was the mystic door, through which all and everything must move on to eternity. But now, somehow, sadly and disillusioned, he realized that the doorway was no doorway. It was narrow, it was false. p. 206) 적어도 그의 성장해 가는 자아가 외부활동

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회의 여러 기구를 수선하고 성가대를 연습시키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들은 그에게 일종의 사회활동으로서의 성취감과 명성(publicity)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써 그 후의 보다 절전된 사회활동—야간학교 강사—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회의 Apollo적 양상이 아직 이 세대에서 자아관념이라는 역할을 보르러 주고 있는 肯定的인 일면이다.

Will의 자아가 차츰 성숙해가고 아이돌이 성장함에 따라 Anna도 잠결같은 모성의 만족에서 차츰 벗어나게 된다. 그러자 둘 사이의 육체관계는 분더 적극적인 것이 된다.

There was no tenderness, no love between them any more, only the maddening, sensuous lust for discovery and the insatiable, exorbitant gratification in the sensual beauties of her body. (p. 236)

이들의 sensual love는 처음보다는 서로에게 덜 致命的이다. 그러나 “tenderness”가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만족은 여전히 Apollo와 Dionysus의 調和로운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사랑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Will의 결전적인 성숙에도 불구하고 Will과 Anna는 하나의 개성으로서의 완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록 sensual love가 Apollo와 Dionysus의 조화로운 세계로의 도입이긴 하지만 만족의 단계에만 주저앉아버린 상태에서는 창조적 生産 위한 초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he Man Who Died”의 창조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지닌 “tenderness”는 서로의 개성이 Apollo와 Dionysus의 調和로 발을 낼 때만 가능한 부드러움인데 바로 이것이 Anna와 Will이 缺如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限界를 느끼며 未完成의 暗黒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As he sat sometimes very still, with a bright, vacant face, Anna could see the suffering among the brightness. He was aware of some limit of himself, of something unformed in his very being, of some buds which were not ripe in him, some folded centers of darkness which would never developed and unfold whilst he was alive in the body. He was unready for fulfilment. Something undeveloped in him limited him, there was a darkness in him which he could



not unfold, which would never unfold in him. (p. 210)

Tom-Lydia, Will-Anna 세대의 男女關係가 調和롭고 創造的인 和合이 그 課題였다면, Ursula 세대의 남녀관계는 個別性的의 획득이 오히려 和合의 의미를 압도하는 과정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보다 현대에 근접한 이 세대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점차 文化的·社會的·宗教的 배경이 Apollo적인 Ego의 원리를 추구하는 경향에 놓이자 주인공들도 점차 단절된 세계의 껍질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세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의 사랑은 그 원래의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그 원래의 창조적 生命力과도 유리되어져 가게 된다. Ursula에게 있어서도 Anton과의 관계는, 앞서도 말한 바처럼 自己完成의 한 試鍊의 역할로 轉落하는 듯하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완성은 진정한 개인 내의 Apollo와 Dionysus의 調和를 바탕으로 하고 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個性을 소유한 남녀 사이의 全靈魂과 全肉體의 Apollo와 Dionysus적인 調和를 통해서만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공 Ursula가 자기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Dionysus적 生命의 원천을 자신의 내부에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男女의 사랑이 안고 있는 課題이며 동시에 현대의 종교(여기서는 Christianity)가 克服해야 할 과제이다. 종교와 사랑은 이미 Lawrence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그 Dionysus적 원천을 共有함에 있어서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이 Dionysus적인 창조적 生命력의 근원에서 출발하여 점차 Apollo적 요소와의 균형을 잃고 마침내는 Apollo적인 生命의 暗照 속에서 다시 Dionysus적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구조가 Ursula가 추구하는 자기완성의 4단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단계들은 또한 종교적 양상의 변화 혹은 Ursula 내부의 종교적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이와 같은 4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첫단계인 Tom 세대가 그들의 집을 神殿으로 꾸미고 그 속에 즐거이 安住한다면 둘째단계인 Will의 세대는 교회 옆, 즉 神殿의 옆에 거주하며 기독교의 Apollo적 位에 환멸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하나의 상징으로 여전히 사랑한다. 다음 Ursula 세대는 그녀가 성숙하여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교회와의 거리도 훨씬 멀어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외부활동의 일상 세계에서 실현하려는 자기완성의 꿈은, Apollo적인 'Idea'로 굳어진 교회의 일요일의 세계가 요구하는 생명없는 정제적인 倫理나 敎理와는 모순을 일으키므로 그녀는 마침내 이 'Word'로만 존재하는 종교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다음 단계는 Ursula가 Anton과의 관계를 통해 껍질을 깨는 죽음같은 아픔을 극복하고 일종의 새로운 세대로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일상의 세계에서 원래의 일요일의 세계의 生命력을 발견하고, 地上과 天上 즉 Dionysus와 Apollo의 調和로운 和合의 상징인 두기개를 보는 단계이다.

어린 시절 Ursula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교회를 통해 환상의 세계를 갖는다. 오히려 이 환상 속에서만 그녀는 現實感을 갖는다. 이 환상은 그녀로 하여금 靈的인 것(spirituality)과 高貴한 것(stateliness)을 갈구하게 하며 이 환상 속에서만 그녀는 안전함을 느낀다.

...her Sunday was very precious to her. She found herself in a strange, undefined place, where her spirit could wander in dreams, unassailed. (p. 273)

이러한 환상은 그녀에게 가정을 벗어나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데, 환상을 통한 자기실현의 욕구는 이후 계속 언덕(hill)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

So Ursula seated herself upon the hill of learning, looking down on the smoke and confusion and the manufacturing, engrossed activity of the town. She was happy. Up here, in the Grammar school, she fancied the air was finer, beyond the factory smoke.

.....  
She was upon another hill-slope, whose summit she had not scaled. There was always the marvellous eagerness in her heart, to climb and to see beyond. (p. 269)

열 서너 살이 되자 그녀의 종교적 신비적 환상은 사랑의 憧憬같은 성질을 띠게 된다. 창세기의 한 컷질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took them wives of all which they chose.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that he also is

flesh; yet his days shall be an hundred and twenty years.

'There were giants i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 that,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un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are children unto them, the same became mighty men which were of old, men of renown.'

This was a genuine fate. She moved about in the essential days,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unto the daughters of men. (p.276)

그녀의 마음은 神의 아들이 人間의 딸들과 結合하는 그 본질적인(essential) 나날 속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학교라는 일상의 생활과 영원한 것의 생활 속에서 이중의 생활을 하게 되며 그녀의 憧憬의 성취되리라는 믿음 속에 빠져든다.

She clung to the secret hope, the aspiration. She lived a dual life, one where the facts of daily life encompassed everything, ...and the other wherein the facts of daily life were superseded by the eternal truth. So utterly did she desire the Sons of God should come to the daughters of men; and she believed more in her desire and its fulfillment than in the obvious facts of life. (pp. 276-7)

그러나 학교생활과 자아의 성숙에 따라 그녀의 원망과 동경의 원인이 되던 基督敎는 그녀에게 영원한 안전과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 Apollo적 양상으로 걸보에 가는 기독교는 이미 復活의 의미는 지니지 못한 죽음의 확인으로밖에밖에 보이지 않는다.

But it was becoming a mechanical action now, this drama: birth at Christmas for death at Good Friday. On Easter Sunday the life drama was as good as finished. For the resurrection was shadowy and overcome by the shadow of death, the Ascension was scarce notice, a mere confirmation of death.

What was the hope and the fulfilment? Nay, was it all only a useless after-death, a wan, bodiless after-death? Alas, and alas for the passion of the human heart, that must die so long before the body was dead. (p.281)

이리하여 현실이 아닌 하나의 다른 세계였던 종교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환상이며 하나의 神話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녀의 이중의 생활은 일단 깨서버리게 되고, 일상의 세계가 일요일의 세계를 압도하게 된다. 이제 Ursula는 자신의 憧憬—예수 즉, 神의 아들이 그녀에게 오는 것—이 일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가 그의 따뜻함을 지닌 人間의 아들로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Yet she must have it in weekday terms—she must. For all her life was a weekday life, now, this was the whole. So he gather her body to his breast, ...which was warm with the life of which she partook, the life of the running blood.

So she craved for the breast of the Son of Man, to lie there. And she was ashamed in her soul, ashamed. For whereas Christ spoke for the Vision to answer, she answered from the weekday fact. It was a betrayal, a transference of meaning, from the vision world, to the matter-of-fact world. (p.285)

이 동경 속의 神의 모습은 Lawrence의 神의 개념—자신 속의 神性, 'God the Flesh'의 발견—과는 달리 외부적인 존재로서의 神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Ursula의 愛情觀은 이미 인간세상에서의 불가능 혹은 과정의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동경을 일상의 세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녀는 보다 먼 세계, 보다 고양된 생활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여기에 Anton Skrebensky가 강한 마산 세계의 감각을 그녀에게 가져다 준다. (He brought her a strong sense of the outer world. p.290) 그러자 그녀는 전 세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인덕" 위에 서게 되는 조짐을 갖게 된다. 그 후 Anton과 Derby에 갔을 때 그가 선물한 책 *Wuthering Heights*나 그들이 함께 타는 '코치'는 '인덕'과 마찬가지로 마산 세계를 향한 도약의 의미하에 자아를 高揚하고픈 욕구를 의미한다. 이 이의 과정은 후에 Fred 삼촌의 결혼식 당 밤 Ursula를 배후지길 '탈'과 연결되어진다.

그런데 Derby에서 교회를 지낸 뒤 Ursula는 Anton과 함께 그 곳에 들어가 보기를 원한다. 일요일의 세계 속에서 삭토기 시작했던 그녀의 동경이 Anton에 의해 實像을 이루어 가자 그녀는 그의 속에서의 확인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 너무나 공사를 위해 완전히 파손되어져 있다. 이는 그 후 그들의 관계가 파멸로 이르고 그녀의 동경이 불

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을 暗示해 준다. 여기서 Anton은 교회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친구 이야기를 해 준다.

'Well, he had a girl in Rochester, and they always sat in a particular corner in the cathedral for their love-making.'

'How nice!' she cried, impulsively. They misunderstood each other.

'It had its disadvantages though. The verger made a row about it.'

'What a shame! Why shouldn't they sit in a cathedral?'

'I suppose they all think it a profanity—except you and Ingram and the girl.'

'I don't think it a profanity—I think it's right to make love in cathedral.'

She said this almost defiantly, in despite of her own soul. (p.297)

사랑과 종교는 원천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Ursula의 환상 속에서도 역시 그러한 것이었다. 한편, Anton이 존재하는 외부세계에서는 이미 사랑과 종교는 각각 'Flesh'와 'Word'로 굳어진 채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사랑의 타락이며 동시에 종교의 타락이다. Apollo와 Dionysus의 調和가 Cossethay의 외부세계에서는 완전히 깨뜨려진 것이다.

이 일로 Ursula의 동경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일요일의 세계는 한 걸음 더 그녀로부터 멀어져 간다. 뿐만 아니라 Ursula의 동경에 의해 선택(?) 되어졌던 Anton 자신의 존재의 의미 또한 Ursula에게 약화되게 된다. 이처럼 Apollo와 Dionysus의 不調和는 양쪽에게 다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 후 Fred 삼촌의 결혼피로연의 밤, 그녀는 Anton보다는 오히려 달에 매혹된다. 그리고 그녀는 주위 사람을 포함하여 Anton도 달에게로 향하는 자신을 방배한다고 느낀다. 달은 그 光輝와 자유로움과 독자성으로, Ursula가 추구하는 자아의 완성과 獨立을 의미한다.

She was not there. Patiently she sat, under the cloak, with Skrebensky holding her hand. But her naked self was away there beating upon the moonlight, dashing the moonlight with her breast and her knees, in meeting, in communion. She half started, to go in actuality, to fling away her clothing and flee away, away from this

dark confusion and chaos of people to the hill and moon. But the people stood round her like stones, like magnetic stones, and she could not go, in actuality. Skrebensky like a loadstone weighed on her, the weight of his presence detained her. ...Oh for the coolness and entire liberty and brightness of the moon. Oh for the cold liberty to be herself, to do entirely as she liked. She wanted to get right away. She felt like bright metal weighted down by dark, impure magnetism. He was the dross, people were the dross. If she could but get away to the clean, free moonlight. (p.319)

Anton은 이미 그녀의 추구에 도움은 커녕 방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Anton은 Ursula에 대해 가졌던 욕구가 파멸되고 자기의 靈魂이 이미 죽어 있음을 Ursula를 통해 느끼게 됨으로써, Ursula의 사랑에 매달리는 한편 그녀를 잊고 싶어 한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6년 후의 再會는 그들의 외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태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한다. Ursula가 6년 동안 추구한 것은 자기의 完成과 獨立(singleness, separateness)인데, 이것은 사랑의 調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피상적인 자기 완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랑의 調和에도 미치지 못하고 만다. Anton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육체를 지닌 하나의 죽은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

Anton과 만나기 전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관찰하면서 Ursula는 이 6년의 結實이라고 한 단란 중대한 眞實에 접하게 된다.

For what purpose were the incalculable physical and chemical activities nodalized in this shadowy, moving speck under her microscope? ...She only knew that it (the nucleus of the creature) was not limited mechanical energy, nor mere purpose of self-preservation and self-assertion. It was a consummation, a being infinite. Self was a oneness with the infinite. *To be oneself was a supreme, gleaming triumph of infinity.*

Ursula sat abstracted over her microscope, in suspense. Her soul was busy, infinitely busy, in the new world. (p.441)

(이텔릭체는 論者)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한자와 일체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은 Lawrence의 神의 개념—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는 神性—과 동일한 것이다. 이 깨달음 주의 둘의 상봉은 이런 의미에서 저의 무의미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Anton과의 비창조적인 육체관계의 도취에서 그녀는 점차 절망을 느끼게 된다.

But it all contained a developing germ of death. After each contact, her anguished desire for him or for that which she never had from him was stronger, her love was more hopeless. After each contact his mad dependence on her was deepened, his hope of standing strong and taking her in his own strength was weakened. He felt himself a mere attribute of her. (p.493)

물론, 'sensual love'를 통해 淨化됨으로써 결국에는 'singleness'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sensual love'는 다분히 긍정적 의미, 즉 'spiritual love'를 排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Anton은 이미 영혼이 없는 인간이므로 그들의 육체관계는 *Women in Love*의 아프리카 彫像의 의미와 같이 파멸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Anton과의 約婚을 방치해 두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Lincolnshire 해안의 달빛 속에서 둘은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게 된다.

She stood on the edge of the water, at the edge of the solid, flashing body of sea, and the wave rushed over her feet.

'I want to go', she cried, in a strong, dominant voice. 'I want to go.'

He saw the moonlight on her face, so she was like metal, he heard her ringing, metallic voice, like the voice of a harpy to him.

...'I want to go,' she cried again, in the high, hard voice, like the scream of gulls.

'Where?' he asked.

'I don't know.'

...Then there in the great flare of light, she clinched hold of him, ...She lay motionless, with wide-open eyes looking at the moon. He came direct to her, without preliminaries. She held him pinned down at the chest, awful. The fight, the struggle for consummation was terrible. It lasted till it was agony to his soul, till he succumbed, till he gave way as if dead, and lay with his face buried, partly in her hair, partly in

the sand, motionless, as if he would be motionless now for ever, hidden away in the dark, buried, only buried, he only wanted to be buried in the godly darkness, only that, and no more.

...He looked up. Her face lay like an image in the moonlight, the eyes with wide open, rigid. But out of the eyes, slowly, there rolled a tear, that glittered in the moonlight as it ran down her cheek.

He felt as if the knife were being pushed into his already dead body. With head strained back, he watched, drawn tense, for the moonlight, the fixed, unseeing eyes, in which slowly the water gathered, shook with glittering moonlight, then surcharged, brimmed over and ran trickling, a tear with its burden of moonlight, into darkness, to fall in the sand. (pp.479—80)

그 후의 破婚과 임신과 말의 환상과 열병은 "언덕"만을 추구하던 그녀가 모든 사물의 바닥(bottom)으로 내려가는 경험이다. 언덕으로 오르기 위해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는 바닥은,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며 진정한 復活을 위한 죽음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How profound was her nausea, how profound! That too plumbed the bottom. She seemed destined to find the bottom of all things to-day: the bottom of all things. Well, at any rate she was walking along the bottom-most bed—she was quite safe: quite safe, if she had to go on and on for ever, seeing this was the very bottom, and there was nothing deeper. There was nothing deeper, you see, so one could not but feel certain, passive. (p.491)

마침내 그녀는 "언덕마루에 조잡하게 지어진 석 집들 위에 흉하게 頹落된 모습으로 서 있는 낡은 教會塔"(p.495) 부근의 언덕 위로 잔란한 무지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굳고 퇴락된 채 그러도 인간의 집 위에 支配力을 행사하는 낡은 教會塔의 모습은 바로 현대의 기독교의 Apollo적 양상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 언덕 위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Lawrence가 이 기독교에 현대의 不毛性을 회복시킬 최후의 희망을 걸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根源이 바로 창조적 생명, 창조적 사랑이므로, 人間의 사랑을 통해 이 희망이 실현되리라는 기

대이기도 하다. 무지개는 天上과 地上, 理想과 實際, 바로 Apollo와 Dionysus의 調和의 상징인 것이다.

### Ⅲ. 結 論

*The Rainbow*는 Lawrence의 人生觀, 宗教觀, 愛情觀, 社會觀이 제 제도를 잠깐 시작하는 작품이다. 이후의 작품들은 *The Rainbow*에서 보인 그의 doctrine의 원칙을 고수한 채, 상징적인 變形과 發展 혹은 完成을 보여준다. 그의 doctrine의 duality는 누구나가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Apollo와 Dionysus의 개념은 이 duality의 개념의 폭을 넓혀주고 의미를 깊게 해 준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duality의 이미지들은 너무 다양하고, 더욱이 그 쓰임이 文脈에 따라 광의와 협의, 혹은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로 구분되어야만 하는 때가 종종 있다. 이 다양한 duality의 이미지들이 그의 작품을 난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要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Apollo와 Dionysus의 개념, 그리고 이 둘의 調和의 概念은, 그 包括性과 심오함으로 하여 이러한 난해함을 충분히 해결해 준다고 보여진다.

다시 Apollo와 Dionysus의 調和가 지니는 본래적 특징을 요약해 본다.

Apollo와 Dionysus의 調和는, “만일 이 둘이(사자와 일각수) 和解를 해서 함께 다정히 늙게 되면 왕관이 떨어져서 그들을 죽여버릴 것이다.”<sup>(33)</sup>라는 Lawrence의 말에서 보다시피, 영원한 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에서의 왕관은 장미 혹은 무지개로 Lawrence작품 여기저기서 대치되어 나타난다. 무지개가 영원히 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지개가 아니다. 그럴 경우 무지개는 하나의 사실로 轉落하여 무지개를 보며 꿈을 갖는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Apollo와 Dionysus의 영원한 調和는 있을 수도 없거나와 있어서도 안된다. 이 調和는 무지개처럼 순간적인 것이므로 오히려 세대를 이어 人間에게 부여되는 과제라고 해야 더 옳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Lawrence의 doctrine은 다분히 ideal한 것이고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vision을 提示하는 작가이므로 ideal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진실되게 살게 하는 데는 ideal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꼭 현실감이 眞實美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이면서도 비극적이지는 않다고 하여 (Hough는 그의 *Dark Sun*에서 Lawrence의 비극적 사건에서는 ‘tragic light’를 볼 수가 없다고 한다. p. 257) 깊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Lawrence는 그의 표현의 詩的·상징적 힘으로 生命의 vision을 강하게 전달한다. Hough는 그의 특징적인 表現力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Lawrence, in fact, is at his strongest when he is exploring a state of affairs which is obscure, which he has not exhausted in life. The writing is a catharsis. When a situation has been lived through and completed, his strength called out.<sup>(34)</sup>

그의 表現의 힘은, 알고 분석해 보면 물방울과 빛의 굴절일 다름인 무지개처럼, 분석하고 뜯어 보면 그 mysterious force를 놓쳐버린다. 그저 느껴지는 vision의 힘, 그것이 Lawrence의 특징인 것이다. “살아 있는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Lawrence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Lawrence의 작품에 그대로 適用되는 적절한 말이다.

To know a living thing is to kill it. You have to kill a thing to know it satisfactorily. For this reason, the desirous consciousness, the SPIRIT, is a vampire.<sup>(35)</sup>

### Bibliograph

- I. Works by D. H. Lawrence
1. *Sons and Lovers*, Penguin Books, 1970.
2. *The Rainbow*, Penguin Books, 1970.
3. *Women in Love*, Penguin Books, 1977.
4. *Lady Chatterley's Lover*, Penguin Books, 1974.
5. “The Man Who Died” in *Love Among the Haystacks and Other Stories*, Penguin Books, 1976.

(33) Hough, Op. Cit., p. 299에서 재인용.

(34) Ibid., p. 53.

(35)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p. 75.

6. "The virgin and the Gipsy" in *St. Mawr and The Virgin and the Gipsy* Penguin Books, 1976.
  7. *Apocalypse*, New York: Viking Press, 1932.
  8. *Fantasia of the Unconscious & Psychoanalysis of the Unconscious* Penguin Books, 1976.
  9.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H. Lawrence*, ed. by Edward D. MacDonald, London: Heinemann, 1936.
  10.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Penguin Books, 1977.
  11.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ed. by Harry T. Moore, London: Heinemann, 1962.
- II. *Critical Studies on Lawrence*
1. Daleski, H.M., *The Forked Flame: A Study D.H. Lawrence*, London: Faber and Faber, 1965.
  2. Goodheart, Eugene, *The Utopian Vision of D.H. Lawrence*
  3. Hough, Graham,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New York: Octagon Books, 1973.
  4. Leavis, F.R., *D.H. Lawrence: Novelist*, London: Chatto & Windus, 1955.
  5. Moore, H.T., *The Life and Works of D. H. Lawrence*, London: Allen and Unwin, 1951.
  6. Spilka Mark, e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J.: Prentice-Hall, 1963.
  7. Vickery, John B. ed., *Myth and Literature*,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1966.
- III. Other References
1. Mood, A.D., ed., *The Waste Land in Different Voice*, Guilford and London: Billing and Soh Ltd., 1974.
  2. Kenner, Hough ed., *T.S. Elio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2.
  3. 니이체, F.W. 「悲劇의 誕生」, 朴俊濤譯, 서울: 박영사, 1978.
  4. 安炳茂 책임편집, 「전환기의 信仰」, 徐南同譯, 서울: 태극출판사, 1979.